

노동생산성, 2자리수 증가세 계속!

2002년 3Q 지수 213.8 기록 ... 근로시간 줄어 노동투입량 감소 확대

2002년 3/4분기 노동생산성지수가 2001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2자리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희범)가 조사한 <2002년 3/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지수는 2001년 3/4분기보다 11.9% 증가한 213.8을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 4/4분기 10.3%를 시작으로 2자리수 상승세에 들어선 이후 2002년 3/4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2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원인은 산업생산이 2002년 2/4분기 6.8%에서 3/4분기 6.9%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노동투입량은 2002년 2/4분기 3.6% 감소한데 이어 3/4분기에도 4.5%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설비투자 증가세(7.7%)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이 확대(18.3%)됨으로써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반면, 근로자수는 1.7% 감소했으나 근로시간은 2.8% 줄어들면서 노동투입량 감소세는 2/4분기보다 다소 확대됐다.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7.5%, 중화학공업은 11.7%로 모두 증가세가 계속됐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운송장비(▽24.5%)와 코크스·석유정제(▽2.7%), 가죽·가방·신발(▽3.7%)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했다.

특히, 영상·음향·통신장비(23.6%), 봉제의복·모피(20.4%), 의료·정밀·광학기기(17.9%), 컴퓨터·사무용기기(17.6%) 등의 노동생산성이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노동투입량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관련지수(1995=1000)

구 분		200 1	200 1				2002		
			1Q	2Q	3Q	4Q	1Q	2Q	3Q
제조업	노동생산성	192.4 (4.0)	184.7 (4.8)	187.2 (1.0)	191.1 (0.2)	206.9 (10.3)	206.6 (11.9)	207.4 (10.8)	213.8 (11.9)
	산출량(산업생산)	157.0 (15)	151.1 (4.9)	155.5 (1.4)	155.0 (-2.2)	166.3 (2.0)	156.7 (3.7)	166.1 (6.8)	165.7 (6.9)
	노동투입량	81.6 (-2.4)	81.8 (0.1)	83.0 (0.4)	81.1 (-2.4)	80.4 (-7.5)	75.9 (-7.3)	80.1 (-3.6)	77.5 (-4.5)
중화학공업	노동생산성	214.7 (4.8)	204.9 (5.8)	208.0 (1.6)	213.4 (1.1)	233.3 (11.3)	230.1 (12.3)	229.0 (10.1)	238.3 (11.7)
	산출량(산업생산)	185.7 (2.4)	178.8 (6.9)	182.5 (2.1)	182.6 (-2.1)	199.1 (3.1)	186.3 (4.2)	197.2 (8.0)	197.6 (8.2)
	노동투입량	86.5 (-2.3)	87.3 (1.1)	87.7 (0.5)	85.6 (-3.2)	85.4 (-7.4)	81.0 (-7.3)	86.1 (-1.9)	82.9 (-3.1)
경공업	노동생산성	117.7 (-0.7)	114.4 (-3.2)	118.7 (-2.0)	118.9 (-1.8)	119.0 (4.4)	125.3 (9.6)	128.5 (8.2)	127.8 (7.5)
	산출량(산업생산)	86.4 (-3.1)	83.1 (-4.8)	89.2 (-1.7)	87.6 (-2.6)	85.9 (-3.4)	84.3 (1.4)	89.9 (0.8)	87.5 (-0.1)
	노동투입량	73.4 (-2.4)	72.7 (-1.6)	75.2 (0.3)	73.7 (-0.8)	72.0 (-7.5)	67.3 (-7.5)	70.0 (-6.9)	68.5 (-7.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노동비용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14.9%)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으로써 2/4분기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됐다.

의료·정밀·광학기기(▽23.0%), 컴퓨터·사무용기기(▽13.6%), 영상·음향·통신장비(▽3.7%), 비금속광물제품(▽3.4%) 등 7개 업종의 단위노동비용은 감소했으나, 선박·철도 등 기타운송장비(66.2%), 자동차·트레일러(29.9%), 전기기계(28.6%), 코크스·석유정제품(22.3%), 가죽·가방·신발(19.9%) 등 15개 업종은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선박·철도 등 기타 운송장비 분야, 전기기계 분야는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해 비용경쟁력 약화가 우려됐다. 또 시간당임금 상승률이 제조업 평균치 14.9%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상위 업종

구 분	업 종	단위노동비용	시간당임금	노동생산성
2Q	선박·철도 등 기타운송장비	71.6	48.6	▽13.4
	코크스·석유정제품	30.9	19.0	▽9.1
	전기기계	25.6	30.4	3.9
3Q	선박·철도 등 기타운송장비	66.2	25.5	▽24.5
	자동차·트레일러	29.9	34.6	3.7
	전기기계	28.6	37.3	6.8

한편, 산자부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시간당 임금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비용경쟁력 향상과 연계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임금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관련지수(1995=1000)

구 분		200 1	200 1				2002		
			1Q	2Q	3Q	4Q	1Q	2Q	3Q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80.2 (4.4)	82.8 (9.8)	77.5 (5.1)	83.0 (5.0)	77.9 (- 1.2)	82.3 (- 0.6)	77.9 (0.5)	85.3 (2.7)
	시간임금	154.3 (8.6)	152.8 (15.0)	145.1 (6.1)	158.6 (5.2)	161.1 (8.9)	169.9 (11.2)	161.5 (11.3)	182.3 (14.9)
	노동생산성	192.4 (4.0)	184.7 (4.8)	187.2 (1.0)	191.1 (0.2)	206.9 (10.3)	206.6 (11.9)	207.4 (10.8)	213.8 (11.9)
중화학공업	단위노동비용	70.1 (2.3)	72.9 (8.4)	68.7 (3.1)	72.0 (2.9)	66.8 (- 4.3)	72.6 (- 0.4)	69.0 (0.4)	74.9 (4.0)
	시간임금	150.5 (7.2)	149.3 (14.6)	142.9 (4.7)	153.7 (4.0)	155.9 (6.6)	167.0 (11.9)	157.9 (10.5)	178.4 (16.1)
	노동생산성	214.7 (4.8)	204.8 (5.8)	208.0 (1.6)	213.4 (1.1)	233.3 (11.3)	230.1 (12.3)	229.0 (10.1)	238.3 (11.7)
경공업	단위노동비용	134.0 (12.4)	135.5 (18.9)	121.5 (11.0)	138.8 (10.3)	140.5 (9.8)	135.6 (0.0)	126.9 (4.5)	143.8 (3.6)
	시간임금	157.8 (11.6)	155.0 (15.0)	144.3 (8.8)	165.0 (8.4)	167.5 (14.7)	169.9 (9.7)	163.0 (13.1)	183.8 (11.4)
	노동생산성	117.7 (-0.7)	114.4 (-3.2)	118.7 (-2.0)	118.9 (- 1.8)	119.2 (4.4)	125.3 (9.6)	128.5 (8.2)	127.8 (7.5)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단위노동비용: 시간임금지수/물적 노동생산성지수(상용근로자기준)×100

시간임금: 명목임금/총근로시간×100